

『햄릿』 속 죽음의 장소를 통해 보는 죽음의 근대사*

고 근 영

단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초록]

본 논문은 프랑스 역사학자 필리프 아리에스(Philippe Ariès)가 분석한 서구 죽음관의 변천사 및 시대구분을 기준으로, 중세 이후 급격한 근대화를 거친 서구 문명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텍스트 『햄릿』(*Hamlet*) 속 주인공들의 애도 방식과 인물들이 죽어간 장소에 반영된 양상을 분석한다. 『햄릿』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속 영국 르네상스인들이 겪어야 했던 정서적 혼란과 트라우마를 주인공의 복잡한 내면 정서로 은유하는 작품이다. ‘애도’를 핵심 주제로 하는 이 작품은 죽음에 대한 서구인들의 태도가 급격한 개인화의 과정을 거치며 근대화되는 과정을 다양한 층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작품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버지 햄릿과 오피리어가 죽어간 장소와 그들이 애도되는 방식을 아리에스의 시대구분에 따라 검토함으로써, ‘길 들여진 죽음’이 ‘자신의 죽음’으로, 다시 ‘타자의 죽음’으로 변모해가는 과정, 즉 중세적 죽음이 근대화되는 양상을 분석해본다. 아리에스의 분석에 근거해 햄릿의 애도를 죽음이 근대화되는 과정의 한 특징으로 읽을 때, 햄릿의 애도는 근대인에게 남겨진 중세적 정신의 잔재가 아닌, 진화하는 근대적 정신의 전형적 표상으로 다시 읽힐 수 있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11887).

다. 이러한 주장의 텍스트적 근거를 찾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작품 속에서 햄릿의 아버지나 오페리야 등의 죽음이 지나치게 애도되고 낭만화되는 방식을 그들이 죽어간 장소인 ‘정원’, ‘강물’ 등이 갖는 문화적 의미와 함께 고찰해볼 예정이다.

주제어: 필리프 아리에스, 『햄릿』, 죽음, 죽음의 장소, 애도

I. 들어가는 말: 『햄릿』의 지나친 애도

『햄릿』은 ‘죽음’이 아닌 ‘애도’에 관한 극이다. 모두가 선왕에 대한 애도를 끝내고 새 왕을 축복할 때, 홀로 상복을 입은 채 애도를 이어가던 햄릿이 아버지 유령을 만나 복수를 결심하는 것으로 시작한 연극은, 죽은 아버지에 대한 애도로서 반역과 살인을 계획한 또 다른 아들(레어티즈)의 복수 참극으로 막을 내린다.

『햄릿』을 애도극으로 정의하는 많은 비평¹⁾ 중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연옥의 햄릿』(*Hamlet in Purgatory*)에서, 스티븐 그린블랫(Stephen Greenblatt)은 햄릿의 멜랑콜리의 이유를 영국 종교개혁 이후 달라진 죽음의 개념과 추모 의례에 대한 변화에서 찾는다. 기존 카톨릭이 허락하던 연옥의 개념을 박탈당하면서,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을 일정 기간 되새기며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당대인들의 슬픔이 햄릿의 멜랑콜리와 ‘지나친’ 애도로 대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 그린블랫의 답변은 부왕의 죽음에 대한 햄릿의 애도 방식과 멜랑콜리를 설명하는데 집중하고 있을 뿐, 이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양태의 죽음과 거기에 대한 여러 인물들의 반응 모두를 설명하지 못한다. 현대의 관객들에게, 홀로 상복을 입고 끝없이 분노하는 햄릿은 물론, 살해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광증에 빠지거나(오페리야),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광분하여 진위의 확인도 없이 반란을 일으키는(레어티즈) 자식들의 과잉된 애도 방식은 다소 낯설고도 기이한 풍경이다. 아버지 햄릿의 유령이 자신의 억울한 죽음 자체보다, 자신의 침실에서 적절한 임종의 의례

도 치르지 못하고 급사한 데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 역시 현대의 관객들에게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햄릿』 속 인물들의 애도 방식과 이를 바라보는 현대 관객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러한 이해의 간극은 당대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현대인들의 그것 사이에 뚜렷한 역사적 단절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주지하다시피, 햄릿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 영국 르네상스인들이 겪어야 했던 정서적 혼란과 트라우마를 햄릿이라는 인물의 복합적인 내면으로 은유해내고 있는 과도기적 텍스트다. 『햄릿』 속 죽음들과 그 죽음의 결과, 즉 남아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와 갈등의 시작으로서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가 저물고 근대가 시작되는 과도기에서 다양한 문화적 격동을 경험한 르네상스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단계적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에 착안해, 본 논문에서는 작품의 주인공인 햄릿은 물론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광증을 얻고 급기야 물에 빠져 죽어간 오필리어, 그리고 그렇게 죽어간 그녀의 죽음이 마치 서사시처럼 묘사되고 애도 되는 모습 등, 죽음에 대한 ‘지나친’ 애도가 당연시되던—혹은 절실해지던—당대의 문화적 맥락을 살펴보고, 이를 인물들이 죽어간 공간—정원, 강물—과 연결지어 분석해본다. 저서 『죽음의 역사』(*Essais Sur L'Histoire De La Mort En Occident Du Moyen Age A Nos Jours*) 등을 통해 시대별로 달라진 서구인들의 죽음관을 통시적으로 개관한 바 있는 프랑스의 역사철학자 필리프 아리에스(Philippe Ariès)에 따르면, 죽음이 그 전통적인 장소였던 ‘침실’ 밖으로 나가 공포의 대상으로 타자화되는 순간 죽음의 역사는 또 한 차례의 거대한 단절, 즉 근대로의 이행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아리에스에 따르면, 서구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 즉 죽음의 문화사는 공동체의 일부로서 죽음을 종의 보편적 숙명으로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점차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아를 획득하면서 죽음의 개념 역시 개별화하기 시작하고, 이제 홀로 남겨진 그들이 죽음이라는 낯선 공포를 효과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노력해온 고군분투의 역사다. 특히, 『햄릿』이 쓰여진 르네상스 시대는 중세 말과 근대 초기를 거치며 개

인화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던 죽음이 완전히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공포와 추모의 대상으로 타자화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를 거쳐 죽음은 18세기 이후에 완전히 타자화되고 현대에 이르러 완전히 금지의 대상으로 삶에서 추방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아리에스의 분석에 의거해 다시 읽을 때, 『햄릿』에 등장하는 다양한 죽음의 양태는 중세 말-근대 초기의 죽음관을 대변할 뿐 아니라 18세기 이후에 도래해 최근의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대적 죽음관을 선구적으로 예시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정신의 대표적 알레고리로 자리매김해온 『햄릿』을 아리에스가 정리한 죽음의 역사를 경유해 읽는 과정을 통해, 르네상스뿐 아니라 이후 도래할 새로운 시대—즉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까지를 예견하는 근대적 정신의 총아로서 그 해석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2. 필리프 아리에스의 『죽음의 역사』를 통해 보는 죽음의 근대화 과정

서구 철학사에서 오랫동안 외면되어 왔던 죽음을 역사철학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대두시킨 사람은 프랑스의 역사철학자 필리프 아리에스였다. 아리에스에 따르면, 서구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중세와 근대, 최근의 현대로 넘어가는 시대적 과도기마다 완만하거나 급격한 변화를 보여 왔고, 이는 죽음을 묘사한 서구의 여러 도상들과 문학 작품을 통해 확인된다. 아리에스는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의식이었던 죽음이 점점 개인화되고 극화되는 과정 속에 인류의 문화가 중세에서 근대로, 근대에서 현대로 전이되는 역사적 단절의 순간들을 발견하고, 이에 근거해 죽음의 시대별 유형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범주²⁾로 구분한다.

1. 길들여진 죽음(The Tame Death)(11-13세기 / 중세 초기)
2. 자신의 죽음(The Death of the Self)(13-16세기 / 중세 중기-말기)
3. 멀고도 가까운 죽음(Remote and Imminent Death)(16-18세기 / 르네상스-바로크 시대)
4. 타인의 죽음 (The Death of the Other)(18-19세기 / 낭만주의 시대)
5. 보이지 않는 죽음(The Invisible Death)(19-20세기 / 산업화 이후)



그림 1 「개인적 심판」
솔가의 가족묘 에피탈,
1500년 이후

아리에스의 설명에 따르면, 중세까지의 서구인들에게 “죽음은 보편적인 것, 그래서 죽음은 무서움의 대상도, 끊임없이 괴로운 존재도 아니었다. 즉 죽음은 친숙하고 길들여진 존재였다(54).” 그러나 중세가 저물어가던 13세기 이후, 죽음은 더 이상 보편적이고 공동체적인 의례가 아닌 개인적이고 사적인 의례, 즉 ‘자신의 죽음’이 된다. 상업자본주의의 태동과 함께 출생 신분과 부, 그리고 문화 격차가 발생하는 등 “근대적인 시간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고유한 실존에 대한 인식(아리에스 52)”이 발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화려한 장례식과 묘비는 물론, 죽기 전 교회에 기부한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그가 받을 추도의 내용 역시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전의 죽음의 도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최후의 심판’의

이미지가 개인의 ‘침실’에서 나타나는 것 역시 이 때부터다.

당대의 여러 이미지들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침실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물론 최후의 심판을 내릴 여러 영적 존재들에 둘러싸여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림 1), 이때 죽어가는 자의 침실은 최후의 순간에서야 자신의 삶 전체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성찰의 공간이다. 심판을 위해 한 개인의 “모든 것이 숙고되고, 계량되고, 기록(아리에스

85)”되면서, 개인의 삶이 하나의 통계적 지식으로 편입되는 것 역시 이 순간이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집단적 의례로서의 죽음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극적 상황과 ‘침실’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 성찰의 과정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 시기의 죽음을, 아리에스는 이전 시대의 “길들여진 죽음”과 대비되는 “자신의 죽음”으로 명명한다.

그러나 죽음이 개인화된 13세기 말 이후에도 죽음은 여전히 침실에 모인 가족과 지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적이고, 친숙하며, 무관심한”(아리에스 28) 사회적 의례면서, 삶의 보편적 과정에 편입되어 있는 자연의 일부였다. 그러나 16세기에 들어 죽음에 관한 주제들을 다룬 도상들 속에서 죽음은 더 이상 삶의 친밀한 일부가 아닌 삶의 완전한 단절로 묘사된다. “가장 오래된 『죽음의 무도』(Danse Macabre)의 도상에서 죽음은 살아있는 자에게 죽음을 고지하지만 그의 몸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는 반면, 16세기의 도상에서 죽음은 살아있는 자를 강간한다(그림 2, 3). 죽음이 사랑과, 즉 타나토스가 에로스와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아리에스 53).”



그림 2 “Dance of Death.”
니클라우스 마뉴엘(Niklaus Manuel
Deutsch),
16세기 초



그림 3 “Death and
the maiden.”
니클라우스 마뉴엘,
1517

아리에스에 따르면, 이러한 에로틱한 성격은 죽음을 미의 개념으로 승화시키거나 축

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결국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죽음을 낭만적 애도와 경배의 대상으로, 즉 “타인의 것”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한다(54). 이제 중요한 것은 살아남은 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충분히 표현하는 것,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이변’을 서사를 통해 납득시키는 것이 된다.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그들의 죽음에 대한 극적인 묘사가 문학과 연극의 중요한 주제가 된 것도 이 시기였고, 16세기에 정초된 죽음의 타자화는 18세기 낭만파 문학에서 그 절정을 이룬 뒤 19세기까지 지속된다.

위와 같은 아리에스의 논의는 『햄릿』을 중세와 초기 근대적 죽음관은 물론, 18세기 이후의 후기 근대적 죽음관을 예견할 수 있는 다층적인 문화 텍스트로 재해석할 근거를 제공한다. 자신의 침실에서 적절한 임종의 의례를 치르지 못하고 급사한 데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는 선왕 햄릿은 ‘침실’ 안에서 공동체에 의해 공인되고 예고된 죽음, 즉 ‘길들여진 죽음’을 맞지 못한 데 대한 울분과 공포를 토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세적 죽음관을 반영하는 동시에, ‘침실’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개인적 성찰의 기회, 즉 ‘최후의 심판’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고통을 토로하는 초기 근대인의 표상이다. 그런 아버지의 죽음을 지나치게 애도하는 과정에서 그의 업적을 미화하고 끝까지 상복을 벗지 않는 햄릿은 물론, 역시 적절한 임종의 절차를 놓친 아버지에 대한 지나친 슬픔 때문에 미쳐버리는 오피리어, 그렇게 강물에서 죽어간 그녀의 모습을 마치 서정시 같은 목가적 모습으로 묘사하는 거트루드 등은 죽음을 미학적 경배의 대상으로 낭만화하고 타자화하기 시작한 후기 근대인들의 죽음관을 예시하고 있다.

특히 『햄릿』을 죽음의 역사 안에서 다시 읽는 작업은 햄릿은 물론, 작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기타 인물들이 보여주는 다소 과잉되거나 기이한 애도 방식에 대한 이유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작품 속 급작스런 죽음들에 대한 남겨진 인물들의 반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침실’이라는 전통적 죽음의 공간이 갖는 문화적 의미와 그 바깥에서의 갑작스런 죽음, 즉 ‘급사’(mors repentina)(Ariès 327)에 대한 중세인과 르네상스인들의 공포에 대한 아리에스의 설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길들여진 죽음”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침실을 벗어난 죽음

『햄릿』 속에 등장하는 죽음의 공통된 특징은 일상적인 죽음의 공간, 즉 침실이 아닌 다른 곳—정원, 강물 등—에서, 전통적인 죽음의 의례 없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데 있다. 특히, 침실을 벗어난 죽음, 즉 침실 밖에서의 ‘급사’에 대한 당대인들의 공포가 가장 명징하게 드러난 부분은 선왕 햄릿의 유령이 아들에게 죽음의 전말을 폭로하는 장면이다. 유령은 자신의 죽음을 마치 서사시의 한 구절처럼 자세하고도 극적으로 묘사한다.

유령: “나는 그날도/ 여느 때의 습관처럼/ 정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 방
심¹의 틈을 타/ 네 숙부가 저주스러운 독을 병에 담아와/ 내 귓속에 부어 넣
었지/ 인간의 혈액과는 상극인 그 독약은/ 목숨의 굶고 가는 모든 혈관을/
수은처럼 재빠르게 돌아다니며/ 맑고 깨끗한 피를 /마치 식초에 떨어뜨린
우유처럼/ 순식간에 굳어버리게 했다/ 그러자 매끈했던 피부에는/ 나병 환
자와 같은 끔찍하고 참혹한 부스럼이 일어나/ 순식간에 온몸을 뒤덮어 버
렸다/ 이렇게 잠든 사이에, 동생의 손에 의해/ 난 목숨과 왕관과 왕비까지
한꺼번에 빼앗겼다/ 한창 피어나는 죄를 머리에 인 채로/ 성체도 받지 못
하고, 망자로 호명 받지도, 종부성사도 받지 못한 채/ 회개할 기회조차 없
이 심판의 날을 맞이했다/ 이 머리에 온갖 죄악을 가득 진 채 말이다/ 오,
무서운 일이다. 무섭고 또 무서운 일이다!² (Hamlet I v. 59-80)” (필자 강
조)

자신의 살해 장면을 묘사하는 유령은 죽음 자체보다, 적절한 죽음의 의례, 즉 성체도, 종부성사도, 회개할 기회도 없이 최후의 심판을 맞았다는 사실에 가장 분노하고 ‘두려워’ 한다. 아리아에스의 설명에 따르면 침실을 벗어난 ‘급사’에 대한 이렇듯 절박한 두려움은 유령이나 햄릿 뿐 아니라, 중세—초기 근대를 살던 르네상스인 모두가 공유하고

있던 절대적 감정이었다.

아리에스에 따르면, 중세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자신의 몸 그대로의 부활을 확신하는 안정적인 내세관을 내재화)함으로써 죽음을 별다른 두려움 없이 태연하게 맞이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죽음은 예고된 것, 친숙한 것이었으며, 예고된 죽음이 찾아오면 그것을 전 인류의 숙명으로 순순히 받아들였다. 중세인들이 두려워한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의 특정한 방식이었다. 그들은 ‘공동체 속’에서 ‘예고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했으며, 그 두 가지 권리를 모두 박탈당한 ‘급사’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었다(Ariès 327). 자신을 독립된 인격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부로 인식한 중세인들에게 있어, 그 일부인 개인의 죽음은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였다. 죽음은 인간 종의 보편적인 숙명일 뿐 아니라 개인의 죽음이 있기에 인류 공동체는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자연의 습격을 통해 공동체가 성원을 잃고 손실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므로, 사람들은 죽음의 의례화(ritualization)를 통해 자연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으로 죽음을 ‘길들이고자’ 했다. 죽음을 의식화하여 여기에 모든 성원을 참여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응집력을 높이고 한 성원의 죽음으로 인한 공동체의 약화를 보충하고자 한 것이다. 죽음의 의례화는 자연의 침략에 대항하는 인간의 보편적 전략이었던 것이다.

그 의례가 치러지는 주된 공간은 죽어가는 자의 침실이였다.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의 성원이 죽어가는 모습을 애도하는 죽음의 의례는 “한 인간의 삶이 개인적인 운명에 머무르지 않고 한 가족, 혹은 한 혈족의 생물학적 연속선 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을 표명하는 행위”(Ariès 12967)였다. 그리하여 ‘침실을 벗어난 죽음’, 즉 공동체가 부재한 채로 혼자 갑작스럽게 죽어가는 급사는 “신의 노여움을 산 부조리한 운명의 도구가 되는 경험” 즉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는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Ariès 327).

‘침실을 벗어난 곳에서의 급사’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은 중세 말—초기 근대(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더욱 강렬해졌는데, 그 기저에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이 자신의 죽음마저 개인화시켜가던 당대인들의 정서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중세

의 후반기에 다가갈수록, 개인적 정체성이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을 누르고 서서히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시선 역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종의 보편적 운명으로서의 죽음에서 개인의 죽음으로 변모하는 이 시기의 죽음을 아리에스는 ‘자신의 죽음’으로 명명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죽음의 개인화가 시작되면서 죽은 자의 내세가 결정되는 ‘최후의 심판’ 역시 개인적인 사건으로 변모되었다는 것이다. 영육이원론의 등장과 함께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구원받을 것이라 믿었던 중세 초기의 관념이 폐기되면서, 이제 개인적인 최후의 심판이라는 사적인 법정 드라마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15세기에 출현한 왕생의 기술(*ars moriendi*)⁵⁾을 통해, 이 법정 드라마의 무대가 그리스도의 옥좌 앞이 아닌 죽어가는 자의 침실이 된 것도 이때였다. 여전히 죽음은 망자의 지인과 공동체 성원들이 참여하는 의례였지만, 이를 다루는 도상들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최후의 심판을 치르는 개인과 법정의 판관들인 신 또는 악마의 묘사였다.

죽음이 공동체의 심판이 아닌 개인의 심판이 된 이상, 이 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개인적인 죽음의 전략이 필요해졌다. 특권층들은 생전에 교회나 수도원에 재산을 헌납하거나, 극빈자들을 위한 자선 행위를 벌이는 등, 개인적 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생전의 자선행위가 경쟁적으로 벌어졌다. 중세 말부터 근대 초기까지 물질주의적 세속화가 가속되면서 삶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컸던 당대인들은 이제 하늘에 재산을 쌓으며 신대륙을 개척하듯 천국의 땅을 정복해갔다. 죽은 자의 참회와 산 자들의 기원을 통해 천국에 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연옥의 개념이 등장한 것도 이때였다. 죽음을 서열화하고 “내세를 식민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Ariès 13022).

위와 같은 아리에스의 설명에 비추어볼 때, 아버지 햄릿 유령의 한탄은 물론, 아버지들의 죽음에 대해 자녀인 햄릿과 오펜리어 등이 보이는 지나친 애도는 ‘침실’ 밖에서의 ‘급사’에 대한 당대인들의 광적인 공포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침실에 둘러싸여 공동체로부터의 마지막 위안을 받을 ‘임종의 침상’ 뿐 아니라, 내세에서의 망자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심판’에서 참회하고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사람

하는 이들에 대한 상실감과 그들이 환기시키는 죽음의 공포가 햄릿과 오펜리어, 레이티스의 절망과 분노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햄릿의 아버지 선왕이 급사를 맞은 ‘정원’이라는 공간 역시, 르네상스인들의 세계관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원은 초기 근대 영국의 종교적, 정치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범우주적인 개념”(이문영 7)으로서 “대우주의 이미지를 표방하는 가장 대중적이고 문학적인 상징물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Cruckshank 83). 정원은 예측도, 통제도 불가능한 원초적 대상인 자연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당대인들에게 정원을 가꾸는 것은 원초적인 자연을 소유, 통제할 뿐 아니라 경작의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문화적 행위였다(Pugh 55). 인간의 빛나는 이성으로 무절제한 삶과 자연을 통제하고 개발하고자 한 르네상스인들의 시대정신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정원 가꾸기를 통하여 원초적 공간인 자연을 소유하고 통제하려 했던 르네상스인들의 모습은 최후의 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기부나 자선 행위를 경쟁적으로 벌여 ‘내세를 식민지화’하던 당대인들의 생각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런 의미에서 햄릿의 아버지 선왕이 정원에서 죽었다는 사실, 게다가 숙부의 손에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르네상스 정신의 현현이었던 햄릿에게 공포와 충격을 배가시켰을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세를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 즉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전통적 공간 ‘침실’을 벗어난 죽음일 뿐 아니라, 르네상스인들에게 또 다른 정복의 대상이었던 자연을 소유하고 통제하고자 만들었던 공간 ‘정원’에서 통제 불가능의 사건, 근친살해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아버지 선왕의 죽음에 대한 ‘르네상스인’ 햄릿의 슬픔과 애도가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상기한 설명만으로 아버지의 죽음 이후 시작된 햄릿의 멜랑콜리나, 유독 낭만적으로 회고되는 오펜리어의 죽음 등,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나머지 죽음의 유형이 모두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죽음에 대한 중세—초기 근대적 관점뿐 아니라, 이후 찾아오게 될 낭만주의적 관조의 태도까지 예견하고 있는 이 작품 속 죽음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후기 근대가 시작된 이후 또 한 번의 변화를 겪은 당대인들의 죽음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멀고도 가까운 죽음”: 연옥을 박탈당한 햄릿의 멜랑콜리

앞서 살펴본 대로, 중세 말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사람들에게는 생전의 자선행위, 면죄부, 연옥에서의 참회와 미사를 통한 구원 등, 죽음에 대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이 존재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죽음은 심판에 대한 개인들의 불안감 정도였지, 죽음 그 자체가 공포의 대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르네상스를 거쳐 바로크 시대가 되면 죽음은 개인의 삶으로부터 떨어져나와 그 자체로 공포의 대상, 즉 ‘멀고도 가까운’ 존재가 되기 시작한다. 종교개혁을 통해 카톨릭이 허락하던 연옥 개념이 폐기되면서 죽음에 대한 전통적 전략 역시 소용없게 됐기 때문이었다. 이제 인간들의 삶은 내세를 보장받지 못하는 한때의 덧없음 유희로 전락한다. 유한한 삶에 대한 덧없음을 표현하는 마카브르⁶⁾ 예술품이 일상적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이때다. 이제 천국이라는 위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삶의 무상함에 대한 우울함과 멜랑콜리 뿐이었다.

서론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스티븐 그린블랫 또한 르네상스인들의 멜랑콜리와 연옥 개념의 상실을 연결시켜 설명한 바 있다. 『햄릿』은 종교개혁 이후 ‘연옥’이라는 공간을 박탈당한 당대 영국인들의 상실감과 불안을 전면화한 작품으로서, “비텐베르크에서 온, 명백히 프로테스탄트적인 기질을 지닌 한 젊은이에게 명백히 카톨릭적인 유령이 출몰하는 극”(Greenblatt 240)이며,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에서 죽음에 대한 구교적/신교적 관점을 혼재시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연옥 개념의 상실과 그것이 당대인들에게 불러온 당혹감에 대한 아리에스의 설명은 상기한 그린블랫의 분석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햄릿과 다른 인물들의 지나친 애도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를 제공한다.

아리에스의 설명에 따르면, 여러 독백들을 통해 삶에 대한 회의감을 토로하는 햄릿의 멜랑콜리는 가까웠던 죽음이 멀어지면서 삶의 필멸성을 확인한 르네상스인들의 상실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막 2장에 등장하는 햄릿의 첫 독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삼촌과 재혼한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주된 내용이지만, 그 시작은 다소 느닷없는 자살 충동과 세상에 대한 회의로 가득 차 있다.

햄릿: 아, 더럽고 더러운 이 육신/ 찢어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녹아버려/ 한 방울
이슬이 되어 사라질 수만 있다면/ 아니, 영원하신 창조주께서/ 자살을 금
하는 계명을 내리지만 않았더라면. 오, 신이여, 신이여!/ 이 얼마나 지겹고
쓸데없고 의미 없고 무익한가/ 내 눈에 비친 이 모든 세상이란!/ 역겹고
역겹구나. 세상은 잡초로 뒤덮인 버려진 정원/ 본성이 비천한 것들로/ 가
득 차 있다. (*Hamlet* I ii. 129-37)

이후에도 햄릿 특유의 독백 및 대사들⁷⁾을 통해 비슷한 맥락의 한탄이 계속 이어진다. 특히 5막 1장 무덤지기 광대와의 대화 중 무덤 속 해골들을 하나둘씩 파헤치면서 그 해골 주인들의 생전과 지금의 상태를 비교하는 장면은 개인의 삶에서 유리되어 오히려 삶의 유한성을 상기시키는 ‘멀고도 가까운 죽음’에 대한 당대인들의 관조적 태도가 여과 없이 드러나 있다.

햄릿: (무덤지기로부터 해골을 받아든다.) 아 불쌍한 요릭! 이 친구를 잘 아네,
호레이쇼/ 훌륭한 상상력을 가진 놀라운 이야기꾼이었지/ 나를 수천 번도
더 업어주곤 했는데/ 이 해골의 등에 매달려 있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는군./ 여기 내가 수없이 입 맞추던 입술이 매달려 있었다 생각하니/
구역질이 나./ 그 익살은 다 어디로 갔지? 사람들을 웃고 떠들게 하던 춤
이며 노래, 재치는 다 어디로 갔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Hamlet* V i.
156-62)

아리에스에 따르면 해골은 당대 유행하던 죽음의 마카브르 이미지들 중 가장 대표적

인 것으로, 당대인들이 느꼈던 삶에 대한 권태의 상징물로서 불확실한 삶에 대한 멜랑콜리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Ariès 7159). “중세에는 외부로부터 밀려 들어오던 죽음이 이제는 사물의 덧없는 공허한 존재성 속으로 녹아 들어가 버린 것이다 (Ariès 7185).”

그러나 이러한 허무와 우울의 상태가 한없이 지속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멜랑콜리에 젖어있던 사람들은 그 무기력감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만 했다. 아리에스에 따르면 그런 고민 끝에 사람들이 찾아낸 방법은 죽음을 자신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소외시킴으로써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죽음은 ‘나의 일’이 아닌 ‘너의 일’, 즉 타인의 것이 된 것이다.

5. “타인의 죽음”: 미학적 경배의 대상이 된 죽음

상기한 바와 같이, 르네상스 시대를 통과하면서 내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이 커지면서, 당대인들에게 죽음은 그 자체로 공포스러운 대상이 되었다. 복잡한 죽음의 의례를 통해 겨우 길들였던 죽음이 다시금 예측 불가능한 야생의 것으로 복귀한 것이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전략은 바로, 죽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즉 경배의 대상으로 미화하는 과정을 통해 죽음을 타자화하는 것이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로잡았던 건 길들여진 죽음도, 자신의 죽음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닌 타인을 잃는 슬픔이었다. 사랑하는 너를 잃는 안타까움, 그 죽음이 가져오는 달콤하고 쓰라린 경험 속에서 정작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 망각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햄릿』에 등장하는 죽음에 대한 묘사나 고인을 회고하는 방식들은, 바로 이러한 죽음의 타자화 경향이 르네상스 시대에서 이미 그 징후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아리에스의 설명에 대한 텍스트적 근거를 제시한다. 선왕 햄릿의 유령을 만난 뒤 호레이쇼는 그의 모습을 마치 서사시 속 영웅을 그리듯 생전의 전설적 업적에 빗대어 묘사한다.

호레이쇼: 선왕[의 유령]계선 야심 찬 노르웨이 왕과 결투를 벌였을 때 입었던/
바로 그 갑옷을 입고 계셨네./ 그리고 찔매를 탄 폴란드 군대를 얼음
판 위에서 그대로 박살 냈을 때/ 지었던 그 화난 표정을 짓고 계셨어.
(*Hamlet* I i. 60-63)

햄릿 역시 선왕 아버지의 위엄을 “태양신 히페리온”(Hyperion)에 비유하거나 (I. ii. 140), “가장 이상적인 인간”(I. ii. 187)으로 묘사하며 미화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특히 물에 빠져 죽은 오펔리어의 죽음을 목가적 서정시처럼 묘사하는 거트루드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낭만적 경배의 대상이 된 죽음을 미화함으로써 죽음을 소외시키려는 낭만주의 시대의 죽음관을 가장 두드러지게 예시하고 있다.

거트루드: 개울가에 피어난 버드나무가 / 이파리들을 거울 같은 수면에 비치고
있는 곳에 / 오펔리어가 들꽃 화환을 들고 나타났다는구나. / 미나리
꽃과 제비췌기풀, 데이지, 그리고 보랏빛 자란으로 엮어 만든 이상한
화환을 들고서. / 천방지축 목동들은 자란 꽃에 이상한 이름을 붙였다
지만 / 정숙한 처녀들은 그 꽃을 ‘죽은 사람들의 손가락’이라 부르지.
/ 그 화환을 늘어진 버들가지에 걸겠다고 나무에 올라가다가 / 발을
디딘 은빛 나뭇가지가 꺾이면서 / 그 애는 손에 들고 있던 화환과 함
께/ 흐느끼는 강물 위로 떨어졌단다./ 두둥실 떠오른 옷자락의 힘으로
잠시 인어처럼 떠 있었는데, / 그런 모습으로 그 애는 옛 찬송가를 부
르더란다. / 마치 자기의 불행을 모르는 사람처럼, / 아니 물에서 태어
나 물과 한없이 친밀한 존재처럼. /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옷자락이
물을 빨아들여 무거워지자/ 그애는 아름다운 노래만 남긴 채 물 아래
진흙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단다. (*Hamlet* IV. vii. 166-82)

케네스 뮤어(Kenneth Muir)는 거트루드가 묘사하는 오펔리어의 익사 장면이 “뜰에 박힌” 묘사일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26). 다만, 그는 이러한 낭만적 묘사가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통해 듣는 이들의 “공포심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평하는데(26), 근대 이후 죽음의 낭만화 경향의 목적이 결국 죽음을 ‘타인의 것’

으로 대상화시키고 그것을 낭만적 관조의 대상으로 삼아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는 아리에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 분석은 상당히 정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강물은 낭만주의 시대 문학 및 회화가 가장 중요한 영감의 원천으로 삼았던 자연물의 일부로서, 오펔리어가 죽어간 강물은 죽음이 그 전통적인 공간인 침실은 물론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르네상스 정신이 투영된 공간이었던 정원에서도 벗어나, 다시 야생의 공간으로 추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어차피 죽음이 나의 통제 안에 있을 수 없다면 아예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야성의 세계 속 타자의 것으로 만들어 낭만적 관조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후기 근대인들의 전략적 변화가 여실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훗날 이 장면은 낭만주의 시대 화가인 존 에버렛 밀레이(John Everett Millais)에 의해 목가적 화풍의 상상도(그림 4)로 그려진다. 이 그림의 제목은 「오펔리어」이지만, 실제 이 그림이 담아내고 있는 것은 오펔리어의 ‘죽음’—원초적이고 자연적인 순환의 일부였던 죽음이 공동체와 개인의 침실을 거쳐 다시 자연으로 추방된 근대적 죽음이다.

『햄릿』이라는 텍스트가 르네상스라는 단일 시대에 국한된 해석이 아닌, 근대의 시작과 끝, 더 나아가서는 최근의 현대를 예견하는 문화적 텍스트로 읽히기 위한 또 하나의 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다.



그림 4 「오펔리어」
(Ophelia). John Everett
Millais, 1852

6. 맺음말: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죽는가

아리에스가 정리한 죽음의 근대사와 그 공간들을 따라 『햄릿』을 읽는 과정은 최근의 현대를 사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죽는가’라는 필연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아리에스의 설명에 따르면, 타인의 죽음에 대한 ‘과도한 애도’로 집약되는 18-9세기의 죽음에 대한 낭만적 태도는 20세기 이후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현대화의 거친 혁명 속에서 죽음은 이제 수치스러운 금기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아리에스 70). “삶은 항상 행복한 것이어야 한다는 현대적 믿음에 갑자기 끼어들어 찬물을 끼얹는 불청객”(70-71)으로서 죽음은 금지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를 가장 명시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물질적 현상은 병원이 새로운 죽음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다(71). 사람들은 더 이상 가족에게 둘러싸인 채 자신의 침실에서 죽지 않고, 병원에서 혼자 죽어가게 되었다. 16세기부터 점점 타자화된 죽음은 18세기 이후 자연으로 추방되더니, 이제 아예 언급이나 전사가 허용되지 않는 ‘금지된 것’으로서 병원에 감금되기에 이른 것이다.

아리에스는 이렇게 삶의 친숙한 일부였던 죽음이 낯선 극복과 통제의 대상으로 삶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되는 과정에서 현대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생각은 축제 날 춤에 취해 표현하는 삶의 즐거움을 뜻하기도 하고, 앞일에 대해 무심한 상태로 순간을 사는데 집중한다는 사고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와 대비해 볼 때,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항상 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자세이며, 세계를 합리적이고 진중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사고— 즉 현대적 관념을 뜻한다.” (Ariès, *The Hour* 572)

결국, 죽음의 근대사는 공동체의 일부에서 군중 속 개인으로 진화해온 인간의 근대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죽음 역시, 공동체의 인락한 숙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단일한 신체로 오롯이 서게 된 근/현대인이 감당해야 할 낯선 과제들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러한 아리에스의 분석에 의거해 『햄릿』을 다시 읽는 작업은 언제나 근대가 시작

되는 시대의 정신과 함께 설명되어온 『햄릿』(De Grazia 485)이 서구 죽음관의 근대화 과정을 증거하는 텍스트로서, 또 한 번 그 현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시킨다. 오늘날의 평단과 무대에서 『햄릿』이 새롭게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보태진 셈이다.

Notes

- 1) 햄릿을 애도극으로 정의하는 기타 주요 비평으로는 “이 작품에서 발화되는 모든 이야기는 애도”에 관한 것(39)이라며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명백한 애도극으로 선언한 자크 라캉(Jaque Lacan), 벤야민의 알레고리 이론에 근거해 햄릿을 근대가 시작되며 분열되기 시작한 파편적 시대 정신의 알레고리로 읽는 휴 그래디(Hugh Grady)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장선영이 프로이드와 라캉을 경유해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햄릿의 우울증과 애도를 분석하였고, 임이연은 햄릿을 애도극으로 해석한 학자 그린블랫과 연출자 양정웅의 관점을 비교 분석한 바 있다.
- 2) 이러한 죽음의 형태학적 시대구분이 처음 등장하는 아리에스의 저작은 『죽음의 역사』(*Essais Sur L'Histoire De La Mort En Occident Du Moyen Age A Nos Jours*)(1975)로, 이때 아리에스는 죽음의 역사를 각각 ‘길들여진 죽음’, ‘자신의 죽음’, ‘타인의 죽음’, ‘금지된 죽음’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죽음의 역사』에서 부족했던 설명과 반대한 자료들을 보충한 후속 연구인 『죽음 앞의 인간』(*L'homme Devant La Mort / The Hour of Our Death*)(1981)에서 그는 다시 르네상스-바로크 시대의 죽음—중세적 죽음(자신의 죽음)이 근대적 죽음(타인의 죽음)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중세와 르네상스(초기 근대), 근대의 모든 특징을 아우르는 이 시기의 죽음을 ‘멀고도 가까운 죽음’으로 명명하며 죽음의 문화사를 5가지 범주로 더욱 구체화한다.
- 3) 이하 모든 『햄릿』 인용문의 번역은 강태경 (새문사 2013), 최종철 (민음사 2009)의 번역본을 참조하였다.
- 4) 중세인들은 몸과 영혼이 세계의 종말이 올 때까지 잠을 잔다고 믿었다. 죽은 자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지 않고, 그저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깨울 때까지 꽃이 핀 정원에서 잠을 자며 기다릴 뿐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 와서 부활할 때,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고 믿었다. 그들에게 죽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문일 뿐이었을 뿐, 장례식은 종종 즐거운 축제 분위기에서 치러지기까지 했다 (진중권 22).
- 5) 15세기의 서구사회에 보급된 ‘죽음의 기술’에 대한 소책자로, 라틴어로 「사망술」 또는 「왕생술」이라는 뜻.
- 6) 찌은 시체나 해골을 묘사한 그림이나 조각을 가리키는 용어.

- 7) “삶이나, 죽음이냐, 그것이 문제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라는 첫 문장으로 유명한 3막 1장의 독백은 물론, 2막 2장 로젠크란츠(Rosencrantz)와 길든스틴(Guildenstern)과의 대화에서도 햄릿은 대화의 맥락과 상관없이 인간과 세상의 부질없음에 대해 설파한다: “인간이란 얼마나 멋진 걸작품인가! 그가 가진 이성은 얼마나 고귀하며 그 능력은 얼마나 무한한 지!...(중략)...그런데 내겐, 왜 (인간이) 한 줌 먼지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 것인지!(What a piece of work is a man! how noble in reason!/how infinite in faculty!.../And yet, to me,/what is this quintessence of dust?)”(Hamlet II ii. 286-290)

인용문헌

- 아리에스, 필리프. 『죽음의 역사』. 이종민 역, 동문선, 1998.
- 이문영. 『『성전』에서 정원 읽기』. 2016.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 임이연. 「『햄릿』의 애도와 스티븐 그린블랏: 애도극으로 『햄릿』 읽기」. 『고전·르네상스 영문학』, 25권 2호, 2016, 143-165쪽.
- 장선영. 「『햄릿』의 애도와 우울증 분석: 프로이드와 라캉을 경유해서」. 『세익스 피어 비평』, 44권 3호, 2008, 517-543쪽.
- 진중권. 『춤추는 죽음 : 서양미술에 나타난 죽음의 미학』. 세종서적, 1997.
- Ariès, Philippe. *The Hour of Our Death*. Translated by Helen Weaver, e-book ed., Vintage Books, 2008. Kindle.
- Cruikshank, Frances. *Verse and Poetics in George Herbert and John Donne*. Ashgate, 2010.
- De Grazia, Margreta. “When Did Hamlet Become Modern?” *Textual Practice*, vol. 17, no. 3, 2003, pp. 485-503.
- Grady, Hugh. “Hamlet as Mourning-Play: A Benjaminisue Interpretation.” *Shakespeare Studies*, vol. 36, 2008, pp. 135-165.
- Greenblatt, Stephen. *Hamlet in Purgatory*. Princeton UP, 2001.
- Lacan, Jacques. “Desire and the Interpretation of Desire in Hamlet.” Translated by James Hulbert, *Yale French Studies*, no. 55/56, 1977, pp. 11-52.
- Muir, Kenneth. *Shakespeare's Sources: Comedies and Tragedies*. Methuen, 1957.
- Pugh, Simon. *Garden-Nature-Language*. Manchester UP, 1988.
- Shakespeare, William. *Hamlet, Prince of Denmark*. Edited by Philip Edwards, Cambridge UP, 2003.

Abstract

The Modernization of Death Presented in the Places of Death in *Hamlet*

Keunyoung KO
Ewha Womans University

Based on the history of the Western view of death and the division of the times analyzed by French historian Philippe Ariè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modernization of Western attitudes toward death is reflected in the ways the main characters of *Hamlet* mourn the dead and in the places where its characters died. *Hamlet* is a work that metaphorizes the emotional confusion and trauma experienced by the British Renaissance people during the transition from the Middle Ages to the modern era with the main characters' complex inner emotions. With *mourning* as the core theme, this work allows a multi-layered observation of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Western attitudes toward death which was in line with the personalization of modern minds. In this paper, by examining the place where Hamlet's father and Ophelia died and the way they were mourned according to Ariès' chronological classification, the process of "the Tame Death" being transformed into "the Death of the Self" and into "The Death of the Others" again; that is,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medieval death. This paper aims to read it again as a typical representation of the evolving modern spirit, not the remnants of the medieval spirit left to modern people, by reading Hamlet's mourning as a characteristic of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death based on Ariès' analysis.

Keywords: Philippe Ariès, *Hamlet*, Death, Mourning, Place of Death

논문접수일: 2022.09.17

심사완료일: 2022.09.25

게재확정일: 2022.10.05

이름: 고근영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강사

이메일: shente7@naver.com